art report

최지원

CHOI JI WON

최지원은 오래된 도자 인형의 얼굴을 그린다. 티 한 점 없이 매끈해서 감정을 헤아릴 수 없는 여인의 얼굴은 반짝이는 겉과 다른 공허한 마음을 떠올리게 한다. 닿지 않아도 감촉이 느껴질 것 같은 그림에서 우리는 동시대의 정서 자체를 보고 느낀다.

작품 속의 도자 인형은 실제 수집품인가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한 호텔에서 우연히 도자기로 만든 장식품을 봤는데 매끈한 표면에 매료됐어요. 제가 도자 인형을 그리기 때문에 실제 수집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진 않아요. 구글에 'Vintage Porcelain Doll'을 검색하면 도자 인형의 이미지가 쭈욱 나와요. 포털 사이트나 빈티지 소품을 판매하는 사이트에서 주로 이미지를 찾고, 화면으로 옮겨두고 있죠.

모아둔 이미지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어떤 주제로 작업하고 싶다는 것을 정하면 그에 맞게 포토샵으로 각각의 이미지를 오려 붙여서 재조합하고 있어요. 이 세팅 과정이 제게는 드로잉 과정인 셈이에요. 콜라주 작업은 계획적으로 해두는 편이고, 어떤 내용에 대해 표현하는 방식은 좀 더 직관적으로 다가가고 있어요.

도자 인형 중에는 동물도 있고, 남성도 있을 텐데 그림에는 주로 여성이 등장하죠. 남성이나 동물도 있지만 폭이 넓지 않고 주로 여성의 옷을 입은 인형이 많은 편이죠. 그런데 종류가 다양했더라도 저는 여성만 그렸을 것 같아요. 제가 여성이라는 것도 영향을 미쳤고요.

여성 작가로서의 정체성이 큰 이유로 작용했나요? 그림 속의 도자 인형과 저를 동일시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는 제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작업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투영된 부분도 있긴 해요. 개인적인 경험에 기반해서 작업을 하게 되니 여성만을 그리는 게 아닐까 싶어요.

정작 인형은 무표정을 짓고 있어요. 표현하고 싶은 것을 은밀하게 감춰두는 걸까요. 상상의 여지를 남겨주는 걸까요. 얼굴을 차갑게 그려내고 있지만 그 부분에서 관객의 입장을 크게 고려하지는 않아요. 생각할 겨를이 없다기보다는 그것이 제가 표현하고 싶은 방향이고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겠네요. 오히려 다른 반응을 듣는 것이 더 재미있어요. 사실 저는 제 그림이 굉장히 직관적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보는 분들 입장에서도 제가 의도한 느낌이 거의 전달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내 눈에는 어떻게 보인다는 해석을 들으면 신선하죠.

그 중 인상적인 피드백이 있었나요? 옷에 대해 물어보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2019년부터 2020년에 걸친 제 초창기 작업에서는 도자 인형이 본래 입고 있던 옷을 그대로 그렸어요. 반면 지금은 자라나 H&M 같은 스파 브랜드의 옷을 그려요. 시대에 맞게 조형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그리는 편이에요.

인형이 무표정한데 피부가 매끈하기 때문에 기괴하다거나 체념한 듯한 느낌도 들어요. 촉각적으로 매끈한 표면은 제 작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모티프예요. 처음엔 몰랐지만 작업을 하면서 보니 겉은 번지르르한데 내실 없는 대상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질문을 듣고 보니 기괴함이나 체념한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겠네요. 이런 새로운 해석을 듣는 게 재미있어요.

작품을 보고 나니 도자 인형에 대한 또 다른 인상이 생기기도 하네요. 도자기는 굉장히 아름답고 단단해 보이지만 작은 충격에도 쉽게 표면이 깨질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매끄러운 표면에 다양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흥미로워요.

빈티지 도자 인형에 시선이 간 것처럼 미술 역시 과거의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했나요? 현대미술도 좋아하지만 중세시대의 그림이나 플랑드르 미술에서도 영감을 받았어요. 혹은 일본 우키요에 목판화에서 나오는 색감이나 구도를 인상 깊게 보기도 했고요.

그간의 작품 중 유달리 마음에 남는 그림은 무엇인가요? '우는 여인'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2019년 말부터 그렸고, 도자 인형에서 눈물 줄기가 나오는 그림이죠. 그리면서 대부분의 과정이 망설임 없이 진행된 데다 당시의 몰입감이 여전히 생각나요. 완성되었을 때의 감정도 여전히 남아 있고요.

'뾰족한 것들의 방해'나 '우는 여인'에는 확실한 장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시선이 몰입되는 효과가 있죠. 두 작품은 각각 가시를 배치한다거나 눈물을 억지로 흘리게 만들어 직접적인 감정 전달 효과가 일어나도록 했어요. 혹은 '스파크'와 같은 작품에서는 불꽃 같은 매개체를 사용하기도 했고요. 죽어 있는 어떤 대상에 무언가 자극을 주어 감각을 일깨우는 의도였고, 그에 따라 구도나 구성을 좀 더 과감하게 시도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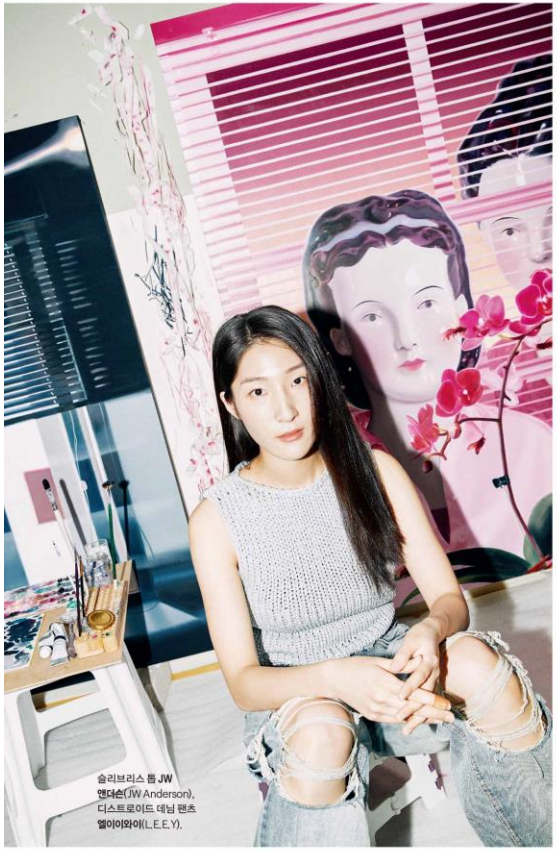
'우는 여인'과 다르게 고민을 하게 된다거나 작업을 잠시 멈추게 만든 작품도 있나요? 아무리 포토샵으로 사전 스케치를 세팅해두었다고 해도, 그 작업은 페인팅을 위한 베이스의 역할이거든요. 붓질을 하면서, 색을 더하면서 비로소 발현되었을 때에 나오는 느낌이 있는데, 그 느낌이 의도한 대로 나오지 않을 때 가장 속상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멀리 떨어져 보는 습관이 있어요. 특히 그림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작품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관찰하는 시간을 자주 가져요.

한발 물러나 보다 보면 조금은 정리가 쉬워질까요? 작업실에 있을 때는 결점이 많아 보이지만 다른 공간에 놓였을 때는 또 다른 느낌이 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머릿속으로나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것 같아요. 어떤 위치에 있을 때 괜찮을지, 그림 이 작품은 완성인지 아닌지를 꽤나 오래 생각해요.

곧 키아프 플러스 참가를 앞두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미술계의 행사이기 때문에 신나기보다는 걱정되는 부분이 더 커요. 하지만 해외 유수의 갤러리가 다양하게 참여해 제 그림이 새로운 신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긍정적인 반응을 얻길 바라요.

표현하고 그린다는 건 때때로 무겁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릴 때부터 화가가 꿈이었어요. 그림 그리는 행위 자체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지금 이 생활을 유지해나가고 싶은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그림 그리는 것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니까요. 제 작업의 주된 동력은 마음이에요. 내가 매료되는 무언가를 발견하면 그림으로 그리고 싶다는 마음이 솟아올라요.

작가로서 어떤 꿈을 꾸고 있나요? 제 꿈은 작가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기보다 작업 생활을 유지해나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작업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미술계에 진입했고, 하다 보니 좋은 기회가 오고 있지만 아직도 부담되고 어렵다는 생각이 크거든요. 현명하게, 너무 지치지 않는 선에서 해나가야겠다는 것이 제 신조인 것 같아요.



슬리브리스 톱 JW 앤더슨(JW Anderson), 디스트로이드 데님 팬츠 엘이이와이(L.E.E.Y).